창 간 정 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923호 | The Seungni Shinmun |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돌아온 양심냉장고>는 시대적 요청인가

요즘 뉴스를 보면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인다. 12.3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심판 사건에서 사회 지도층이 보여준 세칭 '법꾸라지' 행태는 그들의 도덕성에 분노와 회한을 갖게 한다.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속편이 지난 3월 MBC에서 부활했다. 좋은 소식이다. 이름하여 '양심가전(良心家電)'. '양심냉장고'처럼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TV 등의 가전제품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심냉장고'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 참고) 이 프로그램의 탄생에는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최재천 교수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3년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양심'을 언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로부터 2년 뒤인 올해 초에는 『양심』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최 교수는 첫날 방영된 '양심냉장고' 에피소드를 전한다. 그때 국민들의 양심을 울렸던 기억이 새롭게 떠올라 흐뭇해진다. 그는 우리 사회에 양심으로 성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양심'이라는 단어는 승리제단 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는 말일지라도, 불사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뼛속 깊이 새겨진 단어다. 그러나 '양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막상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다.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그렇다면 승리제단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안에 발현된 것이며,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품인 선하고 어진 마음이 피를 따라 내려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죄를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양심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서로 어울려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원시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고 그러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이 진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범이 양심으로 내면화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승리제단에서는 인간은 본래 하나로부터 나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분열의 영인 마귀에 의해 하나가 둘로 나뉘고, 그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그렇게 계속 분열되어 오늘날 80억 인류가 되었고, 우리의 조상은 하나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모두를 하나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열의 영이 들어온 이후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조희성님은 말씀하신다. 따라서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심은 마귀의 영옥에 갇혀 있어서 양심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인간들의 실정이라는 것이다. 양심대로 행하고자 하나 이기심과 욕심이 올라오면서 양심대로 살려는 마음을 제지한다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양심보다는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분열의 영인 마귀가 태초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주체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양심을 제대로 발현하면서 살려면 먼저 자신의 주체영이 되는 마귀를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죽은 양심에서 깨어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심대로 살 수 있을까? 먼저 양심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 중의 한 분이 최근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부각된 문형배 전(前)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지원해준 김장하 선생이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줬지만 자신의 선행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 그분의 이야기는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에 잘 나온다. 이기심을 억누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존경과 찬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자신 속에 숨어있는 양심에 울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양심의 호소가 우리를 양심적으로 살게 한다.

승리제단에서 양심해방운동을 펼친 지 벌써 44년이 되었다. 비양심과 이기심에 찌든 인생들이 자신 속에 갇혀 있는 양심을 회복하여야만 기쁨과 희열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깨달음에 의거하여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양심을 해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양심으로 회복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교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치 어미닭에 안긴 달걀이 부화되어 나오듯이 자신 속에 갇혀있는 양심이 힘을 받아 이기심과 욕심을 뚫고 나오게 된다. 해방된 양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사회 전체를 양심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게 된다. 마음속에만 간직한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양심이 이끄는 삶의 결과가 영생이라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양심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종만 승사

'양심냉장고'

1996년 MBC에서 첫 방영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밤(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이경규가 간다' 코너에서 도로의 정지선을 지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선물로 냉장고를 주기 시작했다. 첫방송 촬영일 거의 모든 운전자가 정지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어기고 지나간 후 처음으로 양심(정지선)을 지킨 운전자가 나왔다. 새벽 4시 13분 쯤 파란색 대우 티코 한 대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켰고, 제작진은 감격에 겨워 그 차를 찾아갔다. 그리고 이 차에서 창문을 내린 사람은 장애인 부부였다. 이때 이경규는 장애인 부부에게 "왜 신호를 지키셨나요?"라고 묻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남편은 "내...가...늘...지켜요."라고 말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양심을 이분들이 지켰을 때 시청자들은 참 감격스러워 했다. 이 첫 방송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 법규에 대한 무관심을 깨치는 계기가 되었다. 제작진은 원래 TV를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이경규씨가 양심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썩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냉장고로 바꾸자고 하여 '양심냉장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무위키』 참조*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8]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견고한 성을 쌓고 인간을 지배한다'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이요, 악한 신인고로 마귀 자체가 악한 영이며, 오늘날 인간을 지배하는 악한 주체영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인 마귀의 관습적(慣習的)인 마음의 상태가 마귀의 성(城)이요, 영 옥(靈獄)이요, 바로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인간을 좌지우지하며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의 집, 마귀의 영 옥을 부셔야 하나님이 석방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법(法)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기는 삶

금이 간 항아리

어떤 사람이 양쪽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의 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쯤 비어 있었다.

금이 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찬 모습 그대로였다.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두 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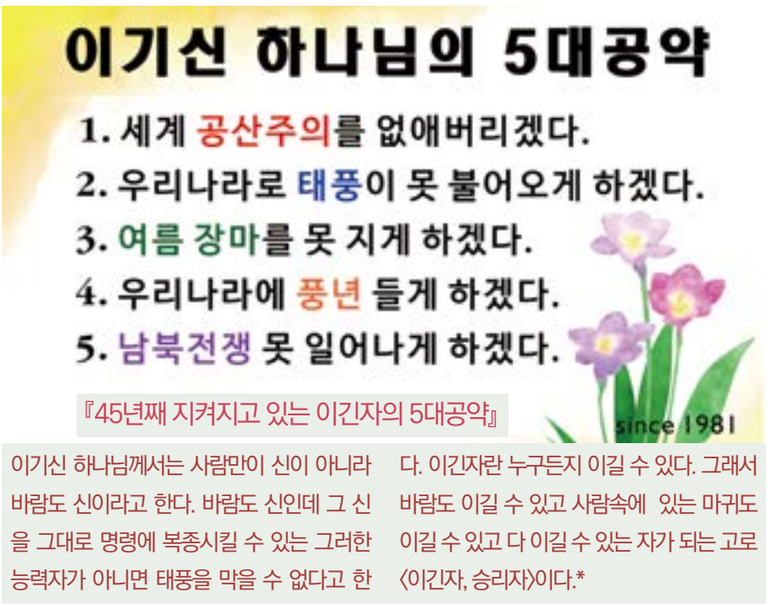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네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니? 너는 금이 갔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긴단다"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한다. 자신의 금이 간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어떤 때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 낙심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들 때문이다.

좀 금이 가면 어떤가? 틈이 있으면 어떤가? 좀 부족하면 어떤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뭔가 책잡힐 것 같아서 가까이하기 어렵지만, 좀 어리숙한 사람은 왠지 도와주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가 보다. 좀 어리숙하게 살자. 상대가 좀 틀려도 그냥 웃어넘겨라. 꼭 집어서 핀잔주지 말고,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는 법이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만약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그 오만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철저히 프로그램된 차디찬 기계와 같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허해지고, 새롭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완벽함을 꿈꾼 결과 열 명 중 여섯 명이 불만과 불행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완벽은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국 배우 피터 유스티노프는 "행복이 불완전할 때 나는 특히 더 행복하다. 완전함은 개성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미국 심리학자 캐시 애론슨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매력을 더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실수 효과'라고 한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이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신이 아니라 바람도 신이라고 한다. 바람도 신인데 그 신을 그대로 명령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아니면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이긴자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람도 이길 수 있고 사람속에 있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고로 〈이긴자, 승리자〉이다.*